

400쪽 분량 물러 특검보고서 이번주 공개

법무부 관리들 편집 마무리 단계... 워싱턴 정가 파장 주시 WSJ "트럼프 임기중 가장 중대한 순간" ... 재선 영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로버트 무러 특검 수사 보고서가 이번 주 내로 공개된다.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미 정치권이 후속 대응을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 관리들은 특검 보고서 편집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4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특검팀이 수사를 종료한 이후 법무부 고위 관리들은 법무부 청사와 청사에서 열 불룩 떨어진 특검 사무소를 오가며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왔다. 당초 특검 수사 종료 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4쪽의 요약본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번엔

보고서 원문에서 민감하거나 불필요한 일부 정보를 수정·삭제한 편집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WSJ는 "이번 보고서 공개가 트럼프 임기 중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며, 2020년 대통령선거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워싱턴 정가도 분주해졌다. 바 장관은 지난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보고서가 다음 주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못박지 않았다. 곧 의회 휴회가 예정돼 있고, 워싱턴과 인근 지역 공립학교도 봄 방학에 들어가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보고서 공개에 맞춰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할지도 고민 중이라고 WSJ

는 전했다.

보고서가 종이로 전달될지 아니면 전자 문서로 전달될지, 편집된 부분은 어떻게 표시될지 등 공개 방식도 미지수다.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하원 법사위원회 변호사와 보좌관들은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요구한 내용과 보고서 편집본이 얼마나 다른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위원회는 편집 정도에 따라 보고서 원문과 보고서에 바탕이 된 정보 제출을 요구할지를 결정한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박 보고서를 준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지사는 한 인터뷰에서 현재 보고서가 140쪽 분량인데 이를 50쪽 분량으로 압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줄리아니 전 지사는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에서 특검의 내부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화당은 보고서 공개 수준이 민주당의 요구에 못 미칠 경우에 대비해 바 장관을 향한 비판을 차단할 준비도 이미 하고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킨 상원 원내대표는 "현 정부뿐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의회에 전문을 공개하면 새어나가게 돼 있다"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고서를 편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러 특검이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측이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에도 특검 수사에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하원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과 사업, 외국 정부와의 관계, 백악관 보안 등에 대해 조사하는 중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77> 배후

배후(裴休, 791-864)의 자는 공미로 하남성 제원 출신이다. 당 선종때의 명 재상이다. 조운(漕運) 개혁 등 당말 재정 전문가로 활약했다.

하동배씨동관방(河東裴氏東眷房)에서 태어났으며 절동관찰사를 역임한 배속의 차남이다. 어려서부터 품행이 바르고 정직하다는 평을 받았다. 경적, 시와 부를 열심히 공부했다. 목종 장경연간 진사에 급제했다. 문종 대와 2년(828) 문종은 직접 현량방정(賢良方正) 시험을 실시했다. 환관이 정황에 진절머리가 난 문종이 환관 숙청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 확보의 의미가 깔려 있었다. 환관들이 황위의 존폐를 결정하는 권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책문을 내 조정을 뒤흔든 유분을 제외한 22명이 이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이

안의 식량 위기는 한 숨을 돌렸다. 배후의 조운 개혁은 세 가지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로 조운 관리와 주현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둘째로 매년 조운의 수수료를 모두 이민(吏民)에게 귀속시켰다. 셋째로 조법 10조를 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차(茶)에 대한 세금도 손질했다. 각 번진에 창고를 설치해 차와 쌀을 저장하고 가격 등락에 따라 이익을 얻도록 조치했다.

각 번진에 차를 저장하도록 하였지만 임의대로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엄히 금하였다. 아울러 황제에게 광산과 산림 개발권을 열철전문사에게 일임하도록 건의했다. 그의 건실한 재정은 문종으로 당말의 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졌다. 결과적으로 왕조 멸망을 늦추는데 기여했다. 852년에는 동중서문하평장사가 되

당 왕조 멸망 늦춘 재정 전문가

후 번진의 요속을 거쳐 중앙에 돌아와 감찰어사, 우보궐, 사관수찬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문종은 송신석을 기용해 환관 견제에 나섰으나 송신석이 역모를 꾸민다는 밀고가 들어와 부득이 그를 내쳤다. 이후 정주, 이훈 등을 기용해 일을 도모했으나 어설픈 계획으로 인해 감로지변(835)은 실패로 끝났다. 수많은 조정대신이 숙청되었고 환관이 조정을 장악했다. 환관이 있는 북사(北司)가 권부가 되었다. 배후는 무종 회창(841-846) 연간 상서랑에 임명돼 여러 차례 지방에 내려가 직접 민정을 살폈다. 수년간의 지방 근무는 후일 탁월한 재정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선종 대종 5년(851) 병부시랑 배후를 열철전문사로 발탁했다. 유안, 양엄, 이손, 정이를 이어 어려운 당나라 경제를 살리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 문종 이래 장강과 화하로 운송되는 쌀이 40만 곡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 줄들이 흠치거나 배를 침몰시켜 장안 근처의 위창(渭倉)에 도달하는 것은 열에 서너개 그쳤다. 그는 조법(漕法) 10조를 확립해 각종 적폐를 시정했다. 3년 후 위창에 들어온 쌀이 120만 곡으로 늘었다. 860년에는 전성기인 현종 천보 시절의 절반에 달하는 143만 곡이 장안으로 수송되었다. 이로써 장

어 재상이 올랐다. 이후 5년간 재상직을 수행했다. 재상이 시정기(時政記)를 쓸 것을 주장해 선종의 허락을 받았다. 856년 황제에게 태자를 속히 세울 것을 건의하니 황제는 "만약 태자를 세우면 집은 끝내 한가한 사람이 된다"며 가납하지 않았다.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총명한 선종도 단약에 빠져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859년 8월 붕어했다. 동년 6월 재상을 물러나 선무절도사로 지방에 내려갔다. 이후 소의, 하동, 봉상, 형남절도사를 역임했다. 870년 74세로 세상을 떠났고 태위에 추증되었다.

진사 합격 이전 한참 공부하던 어느 날 형 배후가 사슴 한 마리를 얻어왔다. 배후에게 사슴을 삶아 같이 먹자고 권했다. 그는 말하기를 "평소 야채도 먹기 힘든 가난한 서생이 오늘 고기를 먹게 되면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결국 사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중년 이후에는 불교 특히 선종(禪宗)에 깊이 빠져들었다. 육식을 금하고 경전을 읽고 정성껏 불공을 드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하동대사' '재상사문'으로 불렀다. 승려 법해(法海)가 사실은 출가한 그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속명은 배두타로 일찍이 불문에 귀의했다고 전해진다.

미남부 토네이도 강타 최소 8명 숨지고 수십명 부상

최고 시속 140마일(225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가 주말 사이 미국 남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다.

14일(현지시간) 미 국립기상청(NWS)과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와 미시시피주 등지를 덮친 토네이도도 최소 8명이 사망했으며, 수십여 명이 부상했다. 확인된 사망자 중 3명은 어린이이다.

텍사스주 동부에서는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차 뒷부분을 짓눌러 뒷좌석에 타고 있던 3세, 8세 아동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 앞 좌석에 타고 있던 부모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13세 소년이 배수로에 빠져 사망했으며, 인근에서는 자동차가 물에 잠겨 그 안에 타고 있던 탑승객 1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미시시피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토네이도에 휩쓸려 나무가 트레일러를 덮치면서 90대 노인이 사망했다. 텍사스주 프랭클린에는 시속 125마일(200km) 안팎의 토네이도가 불면서 가옥과 교회 건물 등 55채가 전파 또는 부분 파손됐다. 이동식 조립주택이 통째로 날아간 사례도 보고됐다.

토네이도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정보 기준으로 텍사스-미시시피 루이지애나-아칸소-조지아주에서 토네이도로 인해 정전된 가구는 9만 호에 달한다. 지난달 토네이도도 20여 명이 사망한 앨라배마주도 전기가 끊겼다.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빅스버그에 있는 한 주유소가 토네이도(회오리바람)의 영향으로 크게 파손돼 있다.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와 텍사스주에 주말 사이 강력한 토네이도가 강타해 최소 8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부상 당했다. /연합뉴스

북·러 정상회담 내주 블라디보스토크서 성사될 듯

중포럼 가는 길서 만날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다음 주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북수의 러시아 현지 소식통이 15일(한국시간) 밝혔다.

러북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내 행사 참석자 24일께 극동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무렵에 그동안 계속 논의돼 온 러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상포럼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이 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극동 연해주에 들러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극동 지역에서 러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도 "일대일로 행사 전이나 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실제로 준비 정황으로 추정되는 북한 측의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측을 압박하기 위해 이미 네 차례나 방문한 우방 중국에 이어 또 다른 '우군'인 러시아를 조만간 찾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연합뉴스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전원주택, 펜션, 별장등 최고장소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토목공사 완료
 - 150평~200평씩 분할 매매 가능
 - 매매-14억2,3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